

크스님 수행한담

이웃이 편안해져요



1977년 11월 6일 충주중원불교심보회(현 충주시암연학회)가 충주여고 강당에서 불교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있는 스님들 가운데 왼쪽에서 6번째가 경우스님.

행은 욕심을 붙들지 않아야 됩니다. 업불하면서, 일하면서, 받으면서, 화강실에서 늘 어디에 있던 인욕수행은 가능하...

는 것은 남에게 주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좋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좋은 일이기 때문...

“참회를 많이하면 할수록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요”

의 진한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흥내나 되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한 스님들은 어른 스님을 모시는 법도에서도 남다른다.

실천은 그렇게 쉽습니다. 내 자신도 때로는 순간 순간 나도 모르게 삼독심이 발동돼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상대편의 마음을 자극하는 소리를 낼 때도 있...

수행의 기본덕목은 '마음을 비우는 것' '상대방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실천'

합니다. 이것이 수행에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당탕 통탕거리면 '저집은 왜 그렇게' 하고 이웃사람들을 걱정해 빠뜨리고 공포에 떨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이상 더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어디 있던 말입니까. 참는다는 것이 왜 좋은 일이나하면 하나 참으면 사구가 다 편하고, 이웃이 다 편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상을 찾으려는 뜻이었지요. 욕심을 버린다는 하더라도 정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탁해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주관을 살리라는 뜻도 되고, 이것이 부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된다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업이 저 밖의 허공이나 세상이나 시간 가운데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 업을 항상 소멸하려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박진태

(前 풍농실업 대표)

유년시절부터 산이 좋아 무턱대고 산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에는 집이나 불교유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산이 좋았을 뿐이다.

구도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체험한 각종 수행생활은 나에게 큰 변화를 줬다. 참선은 불안하고 답답했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줬고, 교리공부는 수행생활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련회와 담사를 다니면서 만난 크스님들과 강사들이 들려준 가르침은 불자의 길을 가는 확실한 나침반 역할을 했다.

대구 구도회와 인연 수행생활 열심 사찰 참배하며 불교문화·역사정리

유가집과 불교경신으로 삶의 지표를 삼고 싶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전국의 절들을 하나씩 참배하기 시작했다.



등을 전공해 본격적으로 삶의 지표를 삼고 싶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전국의 절들을 하나씩 참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작 내 나름의 감흥과 글감이 그렇게 쉽게 마음에 잘 잡혀 주질 않았다. 또 나의 부족함과 모순이 나를 꾸짖고 괴롭히기까지 했다. 타고난 글재주도 문학적 수학을 받아본 적도, 남다른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경험도 없는 나로서 글을 쓴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듣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썼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 불교적 정신인 사회의 도덕과 규범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는 확신을 믿는다. 초심자나 일반인들이 내가 쓴 글들을 통해 불교정신 함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99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법주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법주사 승가대학 '99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선재마을 의료봉사(불교의료봉사단) 진료소 안내. 병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진료 봉사하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십시오.